



3면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 중단하라”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음 1월 12일) 제2723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ICT·순환여과식 기술 접목

道, 내수면 양식산업 新혁신성장동력 확보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 건립
70억 공모 최종 선정

수산기술연구소 인근에
2023년 건립 완료 목표



내수면 현대리새우 시설 배치도.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내수면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을 갖추게 됐다.

도는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일환인 '현대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 시설 건립' 공모에 최종 선정 됐다

시설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원(국비 35, 도비 35)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완주군) 인근에 ICT와 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설이 갖춰지면 고부가가치 현대리새우를 내륙에서 대량생산 및 소규모 양식어가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 양식기술을 개발해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을 한 단계 높여,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실증연구시설 건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재 단위면적생산량 0.18kg/m²을 세계 일류 수준인 20kg/m², 생존율은 19%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현대리새우 양식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시설 일부를 활용해 창

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국 내수면 양식장 면적의 32.3% (268ha)로 전국 1위이지만, 세대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민물고기 소비 감소와 중국 등 해외의 저렴한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내수면 양식 경쟁력과 소득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내 및 세계적으로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리새우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수산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자체예산과 연구인력을 투입해 왔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18년 현대리새우 예비시험을 시작으로 2019~2020년 현대리새우 저열 양식 시험연구를 통해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도 새우를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2020년에는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사업 상세전략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제성을 입증하는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다져온 것이 이번 공모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 지휘부가 기재부와 해수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고 건의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모사업 선정에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과 스마트는 바다와 강도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파도로 이번 공모사업은 이를 뛰어넘기 위한 마중물로서 사업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북도를 내수면 양식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사람이 모이는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래 친환경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기술연구소는 최근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에 이어 3회 연속 해양수산부의 굵직한 공모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의 접종센터로 지정된 전주 완산구 화산체육관에서 22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사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 합동점검

전주시, 화산체육관서 전북도·행안부·경찰·전기안전공 등과
입·출구 분리, 자가발전·냉난방·환기시설 구비여부 등 확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전주의 거점 예방접종센터인 화산체육관에서 정부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은 22일 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보건소와 경찰·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우선 선정 대상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화산체육관은 정부가 시·도별로 1개소씩 선정한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우선선정 대상지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입·출구 분리여부 ▲자가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구비여부 등 예방접종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지원단은 이와 함께 화재와 모더나 백신(mRNA 백신)의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와 관련 임시전력의 필요 여부와 시설 주변의 교통상황, 주차 가능 여부, 우발상황 대비 태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 시는 완산구(화산체육관)와 덕진구에 각 1곳씩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냉동고

가 필요한 화재(영하 75℃±15)와 모더나(영하 20도) 백신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종센터를 가동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 접종대상인 56만여명의 시민에게 안전하고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센터 설치부터 접종대상자 및 백신수급 관리, 이상반응 신속대응 등 준비과정 하나하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원활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이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을 시작으로 1분기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시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어지게 된다. /김윤상 기자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나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가 2022년 1월 오픈을 목표로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참가자 등록, 인력관리, 숙박예약관리, 엔트리관리, 유니폼관리, 수송관리, 헬프데스크, 경기운영, 경기결과배포시스템 등 10개 분야다.

특히 개·폐회식장, 대회종합상황실, 종합별 경기장, 선수등록센터는 물론 대회 운영 관계자들에게는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외 참가자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손쉽게 대회 참가 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경기정보, 경기결과, 대진정보, 메달정보 등 대회 정보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